

클린턴, '96 미국가과학상 시상

페이텔 캘리포니아대 부총장 등 8명 수상

1996년 7월 클린턴 미국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가진 수상식에서 8명의 미국 과학자들에게 미국 정부가 수여하는 최고의 과학상인 국가과학상(내셔널 메달 오브 사이언스)을 주었다.

1950년 미 의회가 제정한 이 메달은 미 국립과학재단이 관장하고 물리, 생물, 수학, 공학 또는 사회 및 행동과학에 공헌한 개인을 기린다.

미국 캘리포니아대학(로스앤젤리스) 연구담당 부총장인 커머 페이텔(58세)은 제조업, 의료, 과학 연구 그리고 재료공정에서 사용되는 이산화탄소 레이저를 발명하여 수상했다.

캘리포니아공대 생물학과 명예교수인 노만 데이비드슨(80세)은 계놈의 전체적인 구조를 가장 일찍 이해하는데 공헌한 업적으로 수상했다.

필라델피아의 자연과학 아카데미 육수학(陸水學) 위원장인 르스 패트릭(88

세)은 지난 수십년간 생물다양성이 민물의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는데 바친 공로로 수상했다.

미국 뉴저지주 뉴브룬스윅 소재 럿거스대학 연구담당 부총장이며 산업 연구를 위한 컴퓨터지원 센터소장인 제임스 플래나건(71세)은 33년간 벨 연구소에서 공학기술과 언어과학을 통합하여 언어커뮤니케이션의 기본문제를 해결하는데 공헌한 업적으로 수상했다.

시애틀 소재 워싱턴대학 컴퓨터과학 및 공학교수인 리처드 카프(61세)는 캘리포니아대학(버클리) 재직중 이론적인 컴퓨터 과학을 실생활문제와 연계시킨 업적으로 수상했다.

뉴욕 소재 컬럼비아대학의 라몬도허티지구관측소 지질학교수인 윌리스 브리커(64세)는 대양과 대기중의 화학적 변화를 연구하면서 대체로 매 천년마다 지구는 한 기상상태로부터 다른 기상상태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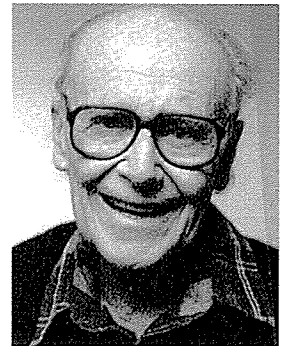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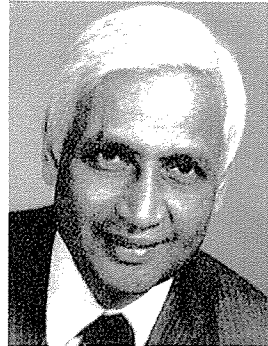
별안간 변화한다는 사실을 발견한 업적으로 수상을 했다.

미국 케임브리지 소재 매사추세츠공대(MIT) 경제학 명예교수인 폴 새뮤얼슨(81세)은 지난 60년간 경제과학, 교육 및 정

책에 대한 근원적인 공헌으로 수상했다. 끝으로 캘리포니아대학(버클리) 명예수학교수인 스티븐 스메일(66세)은 40여년간 순수 및 응용수학의 중요한 발전을 가져온 기초연구의 업적으로 수상했다.

미국가기술상 4명도 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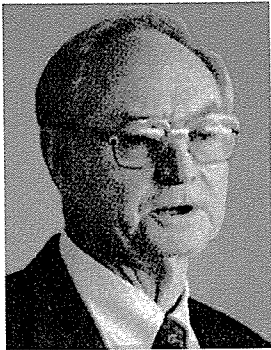
헬기 안전비행기술 개발한 카만사장 등 영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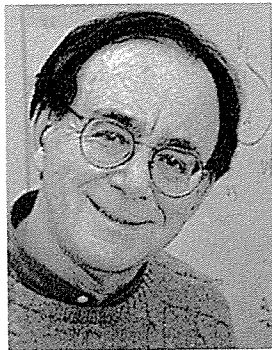
▲ 위로부터 시계방향으로 페이텔, 데이비드슨, 패트릭

한편 클린턴대통령은 8명의 국가과학상수상자를 명명하면서 국가기술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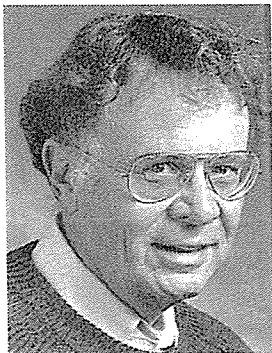
수상자도 함께 발표했다. 1996년 7월말 거행된 수상식에서 4명의 엔지니어



▲ 플레나긴



▲ 카프



▲ 브리커



▲ 새뮤얼슨

어와 1개 기업이 수상되었다.

코네티컷주 블룸필드 소재 카만회사 사장인 찰스 카만은 헬리콥터가 안정되고 쉽게 비행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한 공로로 수상했다.

윌밍턴 소재 듀폰사 컨설턴트인 스테파니 루이스 쿠올케는 방탄조끼와 광섬유케이블과 같은 제품에 사용되는 고성능 아라미드섬유의 발견과 개발에 대한 공헌으로 수상했다.

캘리포니아주 산타클라라 소재 어플라이드 마터리얼사 회장인 제임스 모건은 미국 반도체제조 장비산업 발전에서 보여준 비전과 영도력으로 수상했다.

매사추세츠주 댄버스 소재 크라이테크사 사장인 피터 로즈는 반도체생산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이온주입제품의 개발 및 상품화에 대한 공헌으로 수상했다.

끝으로 뉴브룬스위크 소재 존슨 앤드 존슨사는

최초의 C형 간염 테스트 및 상품화에 이바지한 공와 같은 제품의 연구개발로로 수상했다.

### 교토상 3개 부문 美國人 차지

상금 5천만엔 ... 오는 11월에 시상

12년의 역사를 가진 일본의 교토상에서 처음으로 3개 부문의 수상을 모두 미국인이 차지했다.

해마다 수여하는 교토상은 인류복지향상에 현저한 공헌을 한 사람들을 표창하기 위해 일본의 이나모리재단이 1984년 창설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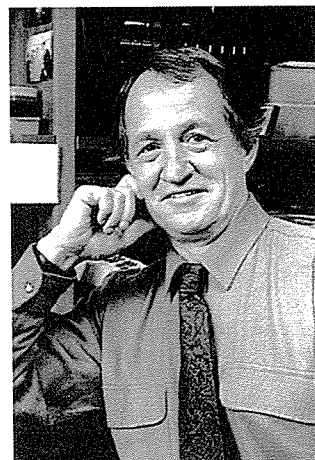
미국 유타대학 의대의 인류유전학교수이며 하워드 휴즈의학연구소 연구

원인 마리오 카페크치(59세)는 금년도 기초과학부문의 수상자가 된다.

그는 연구자들이 쥐의 유전적 돌연변이를 정확하게 포착할 수 있는 기술인 유전자표적분야에서 선구자이다.

다른 두사람의 수상자들은 스탠포드대학 컴퓨터과학 명예교수인 도널드 어빈 크누스와 하버드대학 명예철학교수인 윌라드 반 오만 쿤이다.

이들은 각각 첨단기술부문과 창의적 예술 및 정신과학부문에 수상하게 된다. 수상자들은 각각 상장, 교토상 금메달 그리고 5천만엔(약 46만달러)의 상금을 1996년 11월 교토에서 가지는 시상식에서 받게 된다. **ST**



▲ 제12회 교토상을 받게 되는 유타대학의 유전학자 마리오 카페크치